

# 욥의 인내: 참음과 견딤

Job's Forbearance and Perseverance

욥기 2:8-10; 10:1-3; 야고보서 5: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4월 3일 설교

(참음) <sup>8</sup>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sup>9</sup>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sup>10</sup>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되지 아니하니라.

(견딤) <sup>1</sup>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sup>2</sup>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sup>3</sup>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취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인내) <sup>11</sup>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 욥기의 뜻

욥기는 성경 다른 책에 비해 많이 안 읽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욥과 세 친구가 나누는 대화가 무척이나 지루해 마음먹고 시작해도 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기를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지난주일 욥기가 고통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할 때 더 중요한 주제는 따로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가 뭐니까?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요. 욥기에는 두 가지 자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유고 또 하나는 사람 곧 욥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욥도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자유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자유'의 충돌' 하나까 말이 좀 어렵지요? 말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는 바로 살면 복을 주고 잘못 살면 벌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산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바로 산 사람에게 복 아닌 벌을 주신 거니까 내 자유가 짓밟힌 거지요. 반대로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려면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라야 됩니다. 그 경우 그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난 거니까 하나님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도 믿고 사람에게 주신 자유도 믿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참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오래 전 살았던 욥이 바로 이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고 내가 가진 자유가 부딪쳐 소용돌이가 일어났는데 욥은 그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바른 자세를 지켰습니다. 그런 자세를 야고보서는 인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인내 덕에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 그러니 욥기는 두 개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욥의 아름다운 인내를 배워 복 받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 참음과 견딤

인내(忍耐). 한자말인데 제가 보기에 참 잘 된 말입니다. 참을 인 자에 견딜 내 자를 썼는데 욥이 보여준 인내가 바로 그렇게 참음과 견딤으로 된 인내였습니다.

참는다는 말하고 견딘다는 말은 실제로 비슷하게 쓰지만 뜻은 조금 다릅니다. 참는 것은 안에서 뭔가 터져 나오려 하는 것을 꼭 누르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걸 안 하는 게 참는 겁니다. 분노 같은 감정을 참습니다. 동물은 욕구가 일어나면 못 참지만 사람은 욕망을 참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지요? 그것도 안 하면 참는 겁니다. 성이 나서 폭력을 쓰거나 보복을 하려고 할 때도 주위에서 "참아라" 하고 말합니다.

견디는 건 어떤 상황에 지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센 바람이 불 때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고 위에서 뭐가 내리 누를 때 주저앉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넘어지거나 주저앉아버리면 간단히 끝날 걸 끝까지 버티려 하니 어

렵습니다. 그러니 견디는 건 그만둘 수도 있는 걸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쓰러지니까 견디려면 계속 힘을 쓰면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욥은 이 두 가지를 잘 했습니다. 안에서 터져 나오려 하는 것도 잘 눌러 참았고,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억누르는 압력에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참고 견디었으니 참 아름다운 인내입니다.

## 하나님의 자유

욥이 뭘 참았습니까?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까? 욥이 처음 시련을 겪은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욥은 하루아침에 열 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바로 그 날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복이라 부르던 게 한 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안에서 터져 나오려 한 감정이 뭐겠습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만 섬겨야 되겠다는 유혹입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야 좋지요. 하지만 좋은 걸 다 빼앗아가고 안 좋은 걸 주시는 분이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재산도 넘치게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빼앗아 보라 하셨습니다. 사탄이 노린 건 꼭 하나, 욥이 그렇게 다 빼앗긴 다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의 그런 농간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도 잃고 그 많던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괴로워 걸옷을 찢고 머리도 밀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1:20-22).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이 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온 몸에 큰 병이 나게 했습니다.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굽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굽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사탄이 욥의 아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 꼴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버리시오.”

그런데 욥은 오히려 아내를 꾸짖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도 마시오. 우리가 복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재앙은 왜 안 받겠소?” 평생을 섬겨온 하나님, 내 평생에 온갖 복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 곧 참음입니다.

## 욥의 참음

욥의 참음은 하나님의 자유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셔서 못 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기본대로 이랬다저랬다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면서 또 모든 것을 바르게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세상 모든 일을 언제나 의롭게 바르게 언제나 사랑으로 언제나 자비롭게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에 나한테 좋은 걸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인정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좋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걸 하나님이 못 막으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빼앗아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2:3). 하나님은 그럴 자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빼앗아 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전에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긴 것처럼 이번에는 빼앗아 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몇 주 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랑 쓰나미가 왔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 맞습니다. 자연재해도 사람 때문에 생긴 사고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우주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숨 쉬며 살아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겁니다. 벗은 몸으로 와서 벗은 몸으로 돌아갈 거라는 욥의 고백은 공수래공수거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다. 나한테 좋은 걸 주실 때뿐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안 좋은 걸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주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뿐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 사람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는 욥의 친구들도 인정했습니다. 친구들이야 제삼자니까 참을 거야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자유만 믿었지 욥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만 믿고 욥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자유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피조물이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런 한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도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진짜 자유가 아니라면 책임도 못 지지요.

사실 사탄이 처음부터 노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욥,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진 욥을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욥이 좋은 걸 주실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좋은 걸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안 섬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극을 받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자유도 없이 본능대로 사는 동물이라는 말 아닙니까? 아주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욥은 다 빼앗긴 다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욥이 이겼습니다. 사탄이 참패를 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욥은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자유가 사실 하나님의 자유와 이어져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욥이 복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면서 또한 저 스스로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니 결국 제가 가진 자유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계속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자유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자유도 멋지게 과시하였습니다.

## 욥의 견딤

이 자유,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믿었기에 욥은 힘들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요. 앞뒤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던 복은 한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올바르게 산 나에게 나쁘게 산 사람이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취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면서, 이렇게 짓밟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뭐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은 백 퍼센트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럴 거면 자유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내 자유가 짓밟히는 것도 옳지 않다는 항변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도 옳고 내 자유도 옳은데 현실은 이 둘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굽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자유는 믿었지만 욥의 자유, 곧 사람의 자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겪는 불행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요 벌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니 욥이 죄를 지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지금도 사랑하니까 벌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인내의 삶

회개를 거부하는 욥을 보면 참 뻔뻔스럽습니다. 사실 이 뻔뻔스러움 때문에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겠다 한 그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이 옳다 하셨습니다. 욥을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욥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자유고 책임이고 생각지 않고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다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옳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책임의식을 갖고 멋지게 살아보라 하신 하나님,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약속하시고 나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벌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뿐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게 살도록 철저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까? 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재앙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도 옳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걸 후회하지도 않았고 지금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견딤에 옳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 왔으면서 그저 재앙이 왔다고 회개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 버립니까? 고통이 온다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한다면 인생 살기는 왜 삽니까? 세상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안 살고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옳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런 식이라면 안 사는 게,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호소였습니다.

## 우리의 삶

옳기에서 우리는 옳의 인내를 배웁니다. 참음을 배우고 또 견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내 자유가 충돌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참 쉬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 살면서 온갖 역경과 고통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기에 참 끔찍한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일입니다. 어렵지요. 그러지만 옳은 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옳이 열 명의 자녀를 잃은 것처럼 사람으로 인한 아픔, 가정으로 인한 아픔, 다르게 말하면 사랑 때문에 겪는 아픔이 가장 큼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부부 사이의 사랑이나 부모 자녀 사이의 사랑이 뜻대로 안 되어 상처를 입습니다. 돈 때문에 겪는 아픔도 크지요. 늘 모자라 아쉬운 게 돈인데 그것마저 뺏어 가겠다고 야단입니다. 평생 착하게 산 사람이 사기를 당해 다 날립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합니다. 살다가 폭력을 겪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도 당합니다. 하나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설명은 못 합니다. 옳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왜 그런 고통이 왔는지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안겨 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탄이 장난을 쳤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그냥 두고만 보셨는지 그건 모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도 알고 믿지만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이 고통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엇하고 합쳐 선을 이룰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은 옳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옳기를 주셨습니다.

## 열심히 살자

참는 것과 더불어 견디는 것도 배웁니다. 참는 건 옳기 앞부분 석 장이 가르치고 나머지 서른아홉 장은 견디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견디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견디는 것은 가만있는 게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견디는 것은 재앙이 오고 고통이 와 다 망가져 버린 이 인생, 사탄이 장난을 쳐 짓밟혀버린 이 초라한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부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와 많이 죽었습니다. 집도 밭도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넘어진 집을 다시 세우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쳤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왔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 이런 고통이 왔을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송 하면서 주먹을 움켜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욥에게는 잿더미 말고 없었습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도 다 잃었습니다. 사람도 잃고 사랑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존심마저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욥하고 비기면 별 것 아니겠지요. 욥도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룹니다. 장례식장에 빠지지 않는 게 음식 아닙니까? 그게 희망입니다. 고통의 자리는 곧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고통이 왔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멋대로 하시니까 넌 아무 것도 아니야, 착하게 산 결과가 겨우 이거니? 착하게 열심히 살면 뭐 하니? 오늘도 우리 귀에 그렇게 속삭이면서 포기하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요 또 욥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 인내 또 인내

우리는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고 그 결말도 보았습니다. 결말은 복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합니다. 욥은 재앙을 겪기 전에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생긴 재산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재앙이 지나간 뒤 재산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잿더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욥이 불쌍하다고 금붙이를 모아 주었는데 그걸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를 이루었습니다. 재앙을 겪기 전보다 두 배를 이루었으니 두 배로 열심히 산 거지요. 재앙의 뜻을 몰라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왔기 때문에 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까닭 모를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속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면 쉽지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 인생을 포기해 버려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욥에게 배웠습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의문을 오늘도 괴나리봇짐처럼 짊어지고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 하나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견딜 만한 아픔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아픔을 주실 때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려 끝까지 잘 참고 견디어 복 받는 우리가 됩시다. (권수경 목사)